

安東大宗會報

發行人: 金泰命
編輯人: 金載
印刷人: 宋載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德壽1洞112-49
電話: 244-3717
對摺戶號: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091



年頭辭

一九九五年 乙亥

燦爛하게 躍動하는 一九九五年의 새해를 맞이하여 國內宗親들을 爲始하여 海外宗親諸賢들의 無窮한 幸福과 健康 및 所願成就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새해 人事를 하는 나의 머리속에는 安東 陵洞 影幀閣에 모신 忠烈公 할아버지의 尊嚴스러운 尊影이 떠오르며, 數 많은 子孫들을 반기시고 어루만지시는 모습이 선연합니다. 이事實은 내가 지난 陰十月九日 安東 陵洞의 忠烈公 할아버지와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니 時享을 모시고 온 일이 머리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時享 前날 서울 驛三洞에서 金浦空港으로 새벽길을 떠나 醴泉行 飛行機로 安東에 가서 택시를賃切하여 陵洞 할아버지 影幀閣에 參拜하니 仁慈하시기도 尊嚴스러운 할아버지의 거룩한 모습과 그 따뜻한 膝下が 포근하기만 하였고 그 길로 階段을 올라가 할아버지 山所에 省墓를 할 때의 形言할 수 없는 蔭德이라니.

數百年을 남의 山에 모시었던 墓所를 一九九〇年 九月二十三日 林野 二六九坪을 우리 山으로 만들고 登記를 畢한 後 萬年 幽宅에 甍뿔이 잠드시는 安堵感에 나는 새삼스럽게 이를 解決한 光山 金氏 金澤鎮會長의 人品과 度量에 敬意를 表하며, 光山, 安東 兩家門의 會長이 數次 面談 끝에 解決하였다는 것은 現實과 將來를 爲하여 門中 史上 共히 安東 天地에서 한 章을 裝飾한 것으로 永久不滅하게 共存共榮 하리라

고민은 바이며, 이일이야말로 不可能을 可能케 한 大成果라고 새삼 自負합니다. 墓地를 確保하고 있어서 不過 二·三十名도 省墓할 수 없는 墓域을 三百餘名의 子孫이 時享 參禮도 할 수 있도록 擴張造成하고, 光山 金氏와도 같이 쓸 수 있는 石造 階段 八十餘미터를 築造한 奇蹟은 生覺할 수록 一大巨事였다고 새삼스럽게 回想하게 되었습니다.

多幸이도 工事後 三年이 經過한 現在까지 아무런 瑕疵없이 生生하게 存續되고 있음은 萬幸之事라 感謝하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遠路에서 參席하는 祭官들이 八個의 房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니 寢具가 不足하여 昨秋에 購入하여 補充한 毛布 四〇枚로 추운 밤을 安過한 것도 千幸이었습니다. 時享 前夜는 늦게까지 影幀閣에 自由自在로 參拜하는 祭官들이 줄을 이었으니, 새벽 아침까지 徹夜 開門된 것을 지켜본 나는 初冬의 추운 氣溫에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추우실까 念慮되어 그 出入門을 精誠껏 단아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홀로 들어가 焚香再拜하고 數百名의 祭官들과 後孫들에게 고루 福을 내리시어 우리 安東 金氏가 千歲萬歲 大繁榮하게 하여 주시기를 至誠껏 祝願 또 祝願하였습니다.

陰十月九日 午前九時正刻 京鄕各地에서 雲集한 祭官 二百餘名은 할아버지 時享을 嚴肅하게 舉行하였습니다. 恒常 내가 말한 바와 같이 安東 金氏 大宗會는 마치 宗家와도 같고, 會長은 中始祖인 忠烈公 할아버지와 竹州朴氏 할머니의 大宗孫이라는 矜持를 가지고 온갖 至誠을 다하여 時享을 奉行하고 그 後裔派祖들은 傘下 十五派의 子孫들이 또한 至誠을 다하여야 한다는 主管下에 安東 地方을 中心으로 忠烈公 時享 祭官을 둘러가며 하던 것을 總會에서 大宗會가 主管하기로 決議하였으며, 나는 會長就任以來 每年 四年間을 빠짐없이 時享 前日 安東 陵洞에 가서 祭官들과 宿食을 같이 하며 時享 行事에 萬全을 期

하여 오다가 五年제인 지난 해에는 이제 祭禮의 秩序가 자리잡혀 가므로 初獻官의 자리를 一般 宗親中에서 推薦하고자 提議하였던 바 그때 모인 祭官들의 不贊成으로 會長이 그대로 執禮한 事實이 있었던 바 이 일은 마치 會長이 自己 意思로 해마다 初獻官 執禮를 하는 것이 아니고 衆意에 따른 것입니다.

飲福后 待機한 버스로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니 時享에 臨한 것은 十二時 十分, 이곳이야말로 既報한 대로 設壇한 곳으로 不過 二十餘名의 祭官밖에 收容하지 못하던 곳을 陵洞 墓域 擴張 工事에 이어 面貌를 갖추어 擴張 工事를 實施코자 二年前부터 計劃하면서 大宗會 豫算不足으로 遂意치 못하고 있다가 大宗會 豫算에만 依存하고 있거나 大대의 事業만이 爲先하는 길이 아니고 子孫된 道理로 祖上님께 憫憫함을 덜기 爲하여는 除百事하고 돈없어도 爲先 事業을 하겠다는 執念으로 昨春 清明節을 期하여 會長은 數次 現地를 往來하며 地域 宗親 數名과 隔意없는 熟意 끝에 燕岐郡 宗親會에서 後日 墓域造成할 때 階段設置 하라고 豫託한 돈 二百萬원과 大宗會 金泰珍 理事가 自進 誠金한 二百萬원으로 工事 監役을, 金光得 常任齋有司, 都評議公派 金熙國, 管理人 金載元, 그 곳 金泰暉 宗親이 無報酬로 監督하여 實費 工事를 進行 함으로써 若少한 經費로 三百餘名을 收容 할 墓域과 狹少한 床石을 改安하고, 一九九四年 四月 十七日 竣工하여 客年 時享을 奉行한 것으로 아주 훌륭한 墓域으로 造成되었습니다. 祖上을 爲하는 爲先 事業은 돈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子孫된 사람의 誠心과 努力만 있으면 이룩된다는 것을 體驗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陵洞과 檜谷洞의 齋室 管理도 잘 되었고, 補修할 곳도 없이 安全한 것을 보고 小康을 得하였으며, 金光得 常任齋有司가 每月 兩齋室 共히 數次씩 巡察하고 日記에 記帳하는 등 監督의 徹底를 期하고 있으며, 管理人들이 耕作하는 位土에 對하여 昨年 末까지 特別措置法 手續으로 六筆地中 四筆地는 明春 大宗會 名義로 登記를 畢할 段階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安東 金氏의 中始祖인 忠烈公 할아버지께서 우리 後孫들을 낳았을 때 살피 주시고, 누구에게나 고루 萬福을 내려 주시는 洪福으로 陵洞과 檜谷洞 兩明堂

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萬年 幽宅이 있고, 守護管理하는 威風堂堂한 兩齋室과 祭享을 올리는 基本財産이 陵洞에 田畝 三七七二坪, 林野 三六六坪, 垡地 四三八坪과 檜谷洞에 田畝 二,三七二坪, 林野 一,一六三坪, 垡地 五〇二坪의 財源이 있어 門中의 基盤이 盤石 위에 굳게 다져져 있음을 자랑스럽게 生覺하고 있으며, 이제 經費만 許諾이 된다면 「忠烈公傳記」의 原稿도 蒐集되어 있으니 高麗史에 能通한 史學家에게 委囑하여 發刊만 하면 될 段階에 있습니다. 끝으로 大宗會 會長인 나는 只今 安東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삼가 큰 절을 올리고 우리 後孫들이 날로 繁昌함과 宗親들의 幸運을 또한 祈願하면서 年頭辭에 가름합니다.

一九九五年 새아침
安東 金氏 大宗會
會長·辯護士 金泰亨

謹賀新年

安東 金氏 大宗會 中央本部

- 顧問 一同
- 各派 會長 一同
- 大宗會 理事 一同

忠烈公享祀時獻誠者名單

一九九四年(甲戌)陰十月九日

派	姓名	住所	金額
大宗會會長	泰亨		二〇〇,〇〇〇
楊州議政府			一〇〇,〇〇〇
東豆川宗親會			一〇〇,〇〇〇
大邱宗親會			一〇〇,〇〇〇
青壯年會			一〇〇,〇〇〇
郡事公派宗	在錫	坡州郡	五〇,〇〇〇
會會長	尚煒	서울市	五〇,〇〇〇
開城尹公派	鶴應	槐山郡	五〇,〇〇〇
宗會會長		清州市	五〇,〇〇〇
提學公派		梧倉面	五〇,〇〇〇
清州宗親會			五〇,〇〇〇
按廉使公派			五〇,〇〇〇
宗會會長			五〇,〇〇〇

(二面に 계속)

宗中動靜

孝昭公神道碑移建

翼元公 諱士衡의 曾孫이신 孝昭公 諱碩、號桐谷의 宗中、孝昭公 宗中會長 俊會氏께서 宗中의 宿願事인 神道碑 移建과 齋閣建立 事業을 不斷히 推進해 오던 중 지난 一九九四年十一月 十三日 (陰十月十一日) 거북坐臺와 龍冠을 갖추어 移建하고 此際에 翻譯碑까지 建豎하고、桐谷齋閣 竣工式도 兼하여 舉行하였으시며 午後 孝昭公의 時享을 賢宗들의 호뜻한 마음으로 正성을 다하여 올렸습니다. 이 일에 贊誠하신 宗人들은 勿論 總務職을 맡고 있는 先會甫께서도 勞苦가 컸다.



△ 孝昭公 神道碑

新年先塋巡禮

郡事公派에서는 一九九五年 一月八日日曜日 會長 在錫氏와 總務 榮洙氏、有司 在龍氏、理事 一同과 事前에 協議를 갖고 決議한 新年先塋巡禮를 實行했다. 各世帶別로 夫人 婦子女를 同伴하여 總人員 七十一名이 觀光車二臺로 먼저 安東陵洞 忠烈公 할아버지 산所를 參拜하고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님 산所를 參拜한 후 同伴한 一行은 祖上의 일들을 기리면서 忠烈公 할아버님의 忠節度의 깊은 의의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 歸路에는 文化遺跡이 있는 河回마을을 들러 河回마을에 대한 由來談을 듣고 參席宗人 모두 祖上任의 先塋을 參拜한 호뜻한 마음을 가슴에 부풀리며 鄉村에 到着하니 밤十二時였다.

文溫公 詩碑 建立



△ 文溫公 詩碑

一九九四年十一月三日 文溫公派에서는 時祭奉享과 더불어 一年餘 동안 推進해 오던 文溫公 諱九容、號揚若齋先祖의 詩碑 建立을 竣工케 되었다. 이날 많은 後孫들과 地域有名人 事와 儒學들이 多數 參席한 가운데 除幕式이 舉行되었다. 이에 이어서 揚若齋 帆急冊字도 發刊하여 後孫들에게는 勿論 內外戚間 地域人 士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다. 이에 不斷한 努力을 하신 派宗會長 光日宗親과 事業理事 在洪宗親의 勞苦가 더욱 컸다 한다. 또 한 帆急揚若齋金九容先生 詩碑編修에는 文溫公派宗會 副會長이신 在承氏가 맡아 주셨다.

揚若齋의 中國大理衛流配船 紀行詩中 一編 帆急을 수록해 본다.

帆急
帆急山如走 뜻이 빨
리나부끼니 산이 달
리는듯
舟行岸自移 배가 나
아가니 언덕이 스스

在寬氏 忠北文化賞受賞

按廉使公 十九代孫 在寬氏께서는 十一月八日 忠清北道 道文化賞 授賞者 選定에서 文藝藝術部門에 選定되어 지난十一月二十四日 忠清北道 道知事로 부터 賞牌와 施賞金 삼백만원을 받았고、現在 淸州大 教授로 在職中이며、이는 우리 門中의 榮光임을 傳하는 바이다.

宗中行事·消息

지난 一九九四年 十一月七日(陰十月五日)은 忠烈公의 셋째 아들인 恂 諱文英公의 셋째 아들인 諱永 照 諱貞簡公과 貞簡公의 아들인 諱藏 諱領三司事公의 둘째 아들인 按廉使公 諱士廉 三代의 時祭를 按廉使公派、翼元公派、書雲觀正公派 三派가 參禮하여 每年 享祀를 配享한다. 올해도 三派의 子孫들이 京鄕各地에서 많이 參席하여 時祭를 올리고 三派의 和睦을 굳게 다졌다.

墓所는 忠北 淸原郡 梧倉面 慕亭里에 三代가 모셔져 있다.

提學公派任員改選
지난 一九九四年 十一月八日 提學公派는 總會를 開催하여 會計 決算과 宗務를 協議하고、이어서 任員을 改選함에 있어 다음 任員을 宗人들의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新任員名單
會長.. 鶴應氏

副會長.. 相國氏
副會長 泰珍氏
總務.. 泰玉氏

博川名譽郡守 任命
開城尹公 諱七霖祖의 二十五代孫 尚玉賢宗께서는 지난 一九九四年十月에 平北 博川 名譽郡守에 任命되었다.

三富海運株)會長 金泰麟
按廉使公 二十一代孫 泰麟宗親께서는 지난 十月 小型複寫機一台를 寄贈하여 大宗會業務에 큰 도움을 주었다.

安東金氏世居地에 世蹟碑 建立 推進

按廉使公의 六代孫 參奉公 諱公彦 門中에서는 宗孫 永植氏와 在京宗親會長 觀默氏를 主軸으로 聖會 前總務와 現總務 泰雲의 積極的인 活躍으로 宗人들이 一致團結和合을 이루어 安東金氏 四百年 世居地인 天安郡 並川面(옛이름 木川)에 世蹟碑 建立을 推進하고 있는데、지난 一九九四年九月九日 鷺梁津에서 모임을 갖고 宗人들의 極贊과 崇祖精神이 充滿한 가운데 會議를 開催하였다. 公彦祖께서는 朝鮮朝 成宗 때의 어른으로 東部 參奉에 계시다가 己卯土禍 때 現並川面 도원리 광기동에 자리를 잡으시고、配位 善山柳氏 사이에 四男을 두셨는데 長男은 熹요、次男은 燾며、三男은 勳、四男은 熙이시다. 現在 公彦祖의 世居地를 지켜 내려온 後孫들은 셋째 아들인 勳의 孫으로 陸族의 理念이 厚朴하여 宗親間의 友愛가 두터운 집안이다.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印刷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練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碩快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의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自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安東金氏 八峰墓苑



八峰墓苑은 按廉使公 八代孫左承旨公 諱洛瑞祖의 墓所가 忠北 清原郡 梧倉面 장대리 後山에 모셔져 있었으나, 都市計劃區域으로 策정이 되어 永久保存키가 어려워지므로 派宗會에서 宗會를 거쳐 清原郡 南二面 八峰里 山三〇—五番地를 買入하여 새로운 安慰之地를 마련하고 지난 一九九四年 十月 十一日 移安을 마치고 安東金氏 八峰墓苑으로 이름하고 다음과 같은 所願의 글을 올리었다.

安東金氏 八峰墓苑 歷史記은 上黨고을 州南十五里 岑嶺 清秀 八峰南麓 向陽之原에 天惠의 福地를 幸得하여 우리 祖先의 塋墓를 造成하였으니 이는 天時와 地利가 融和하고, 또한 祖靈의 感應이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되신 우리들

顯祖三位는 本是 京兆 名山 또는 桑梓之鄉에 幽宅을 世守하여 오던 터이었으나, 開化風潮와 都市開發이란 近代 化事業으로 不得已 變遷을 經시게됨에 後 孫된 道理로 모두가 罔之所措하기 오래였다. 이제 祖上의 庇蔭으로 天藏之秘處에 墓苑을 다듬고, 中央에 贈承政院左承旨公을 祀시고 向하여 左便에 是 司憲府持平公을, 右便에 是 成川都護府使贈 史曹判書議政府左贊成 諡愍肅公의 宅兆를 緬奉營建하시니 是 西紀一九九四年 甲戌 十月 八日이었다. 우리 後孫된 京鄉諸宗들은 기리 塋域을 守護하며 모듬지기 祖先의 爲國 忠節과 偉大한 遺德을 崇慕하고 後生을 育養하여서 萬世顯榮을 誓願하시어다.

安東金氏 (按廉使公系) 承旨公派宗會 立

孝의 이야기

별 것도 아닌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게 하면서도 「몸에 대해 부모에게 感謝하는子女는 얼마나 될까. 九一년 통계청에서 十五세 이상의 男女를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것을 보면 長男이 父母를 모셔야 할 責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十八.三%만이 그렇다고 했을 뿐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했다. 父母들은 뼈저리게 일을 해 주셨을 게 아니라 자식들은 제가 잘 나서 자식, 父母의 恩德으로 컸다는 생각은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다. 이쯤되면 부모는 子女에게 짐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뿐이다. 老는 成功의 인생의 基本이요, 길이다. 基本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막길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父母를 살해하거나 暴行 또는 監禁 협박을 해 입건된 것을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一만五千여 명이 나뉘다 하니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부모는 부지기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싱가포르에서는 孝道를 法으로 제정해서 높이고 난한 父母를 扶養하지 않는 子女에게 罰金刑과 懲役刑을 執行하게 하며, 扶養하지 않을 경우 每月生活費와 費用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東方禮儀之國이라 하면서도 孝에 對한 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父母가 子息을 키울 때 孝道를 받았다고 작정하고 키우지는 않는다. 그냥 귀여워 자

신의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愛情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父母들이 너무나 귀여운 마음으로만 키우는 것이 不孝子로 만드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보는 視覺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나 우리는 父母들이 가진 것 다 털어 무분별한 教育의 熱로 지나친 偏愛때문에 앞서 말한 수 많은 不孝子들이 있다. 孝道의 옛이야기에 이런 말을 들은 생각이 난다. 父母가 가르친 자식한테 효도받지 못하고 못한 자식이 효도한다고. 모든 젊은 세대는 신세대를 앞서워 옛말을 일축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요즘도 侍墓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父母任성기기에 온 정성을 기울여 보자. (編輯室)

백성들은 집을 출정군(出征軍)에게 공(供) 제공하고, 몸 하나만 서교(西郊)의 산간(山間)에 있는 사원(寺院)의 주변(周邊)에 옮겼다. 말 울음소리와 군대의 소(騷擾) 소리는 五킬로미터 떨어진 산간(山間) 부락까지 들려왔다. (山間) 부락까지 들려와 있었다. 군대와 말은 잠간 사이에 개성(京城)의 거리를 점령(占領)하고 거리 거리의 도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風濤

第四十四回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원사(元使)가 도착할 무렵, 작은 선봉(旋風)은 광장(廣場)에 불어왔다. 원사(元使)의 일행 앞에 때마침 사진(砂塵)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사(元使)들을 둘러싸고, 그것이 잠잠해지자 그 중에서

원사(元使)가 도착할 무렵, 작은 선봉(旋風)은 광장(廣場)에 불어왔다. 원사(元使)의 일행 앞에 때마침 사진(砂塵)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사(元使)들을 둘러싸고, 그것이 잠잠해지자 그 중에서

전부 무장(武裝)을 하고 있었다. 군대와 말은 잠간 사이에 개성의 거리를 점령(占領)하고 거리 거리의 도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山間) 부락까지 들려왔다. (山間) 부락까지 들려와 있었다. 군대와 말은 잠간 사이에 개성의 거리를 점령(占領)하고 거리 거리의 도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경사

금·은·보석·시계 도매

금·은·보석·시계와 더불어 20년의 전통 예물 전문점으로 종친들의 심방을 환영합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164-1번지
 店鋪電話 : 272-9557 · 273-0241
 핸드폰 : 011-257-8450
 自宅 : 971-8066 主 金希京



향전원예

代表 金 在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 1·2호)

TEL : 7883-3166 · 7883-3167
 7800-8477
 FAX : 7800-8478
 552-15327